

근대 지명 지료에 나타난 기장군 행정 지명 변천 연구

이 근 열*

| 목 차 |

- I. 들어가기
- II. 기장군 행정 지명의 변천 자료
- III. 기장군 행정 지명 변천 정보 분석
- IV. 결론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부산 기장군의 행정 구역 지명의 변천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존 지명 정보의 오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일제 강점기에 지명의 변천과 그 흔적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지명 자료는 『호구총수』(1789), 『기장현읍지』(1832), 『기장군읍지』(1899),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1904), 『조선지지자료』(1911), 『구한국행정구역명칭편람』(1912), 『경상남도지지조서』(1914),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편람』(1912), 『동래군지』(1930), 『한국지명총람』(1980) 등이다. 연구의 내용은 기장군의 행정 구역 지명의 변천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그 특징을 분석한 후, 그 중에 당사리, 만화리, 용소리, 기룡리, 구철리, 연구리, 백길리, 두명리, 연화리, 방곡리 등 총 열 개의 마을 지명을 대

* 부산대학교 국어교육학과 강의교수 / gonyal@naver.com

상으로 『한국지명총람』, 『부산지명총람』, 『부산향토문화전자대전』 등의 자료와 비교 대조하여 그 오류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지명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놓은 『한국지명총람』에는 일제 강점기에 변화된 지명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부산시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 『부산지명총람』 등의 지명 정보와 최근에 만든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의 기장 행정 지명 정보가 상당 부분 왜곡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둘째, 기장의 지명 변천은 『호구총수』(1789)에서 시작되고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1904)에서 많이 바뀌어 나타난다. 그 후 일제 강점기인 1914년 『경상남도지조서』에서 읍(邑)을 중심으로 한 면명(面名)이 면(面)의 중심지 중심의 면명으로 바뀌어 나타나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셋째, 당사리, 만화리, 용소리, 기룡리, 구칠리, 연구리, 백길리, 두명리, 연화리, 방곡리 등의 기장 마을 지명 변천자료의 오류를 시급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핵심어 : 부산 근대 지명, 기장 행정 지명, 한국지명총람, 부산지명총람, 부산향토문화전자대전

I. 들어가기

부산의 행정 구역 지명은 다른 지역에 비해 변화가 심한 편이다. 개항기에 왜관으로 비롯한 부지의 확장과 함께 일제 강점기의 전초기지로써의 부산항의 확장, 도심의 개편 등으로 행정 구역이 빈번하게 바뀌어 왔다. 기장 지역 역시 갑오개혁으로 근대적 행정 구역 개편과 함께 1914년 일제 강점기의 행정 구역 통폐합으로 인해 다양한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행정 지명은 고지도, 근대 문헌 자료 등에 많이 나타나 있지만 단편적인 연구로는 지명의 변천에 대한 정확한 시기와 양상을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지명의 역사적 변천의 자료는 지명의 생성과 소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제공하고 지명의 전승에 대한 또다른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지만 단편적인 지명 정보는 오히려 왜곡된 정보만을 양산할 수 있다.

지명의 변천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지명 자료의 확인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지명 자료에 나타난 기록 정보는 다양한 관점에서 기술되어 자료의 균질성을 보장받기 힘들기도 하고 지명 정보의 특성상 정보 기록자에 따라 정보의 왜곡이 발생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공적으로 만들어진 자료는 지명의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더러는 우리의 믿음과는 달리 오기도 나타나서 정확성이 의심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오기를 현재의 지명 정보에 반영하여 지명 정보의 해석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부산 지역 중에서 기장 지역을 중심으로 마을의 지명의 변천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일제 강점기의 지명의 변화가 그대로 현재의 지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역사적 지명 정보를 왜곡하는 것도 많이 나타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지명 정보가 『한국지명총람(1980)』을 거쳐 부산지역의 지명을 집대성한 『부산지명총람(1995~2002)』까지 이어지며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의 지명 정보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기장군 철마면 이곡리(耳谷里)에 있는 곽암(霍巖)마을의 경우, 1904년에 발간한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에 ‘上西面 霍巖里’로 나타난다. 그후 1911년의 『조선지리지자료』에서 ‘上西面 角巖里’로 바뀌어 나타난다. 이는 ‘곽암’이 해당 지역에서는 ‘각암’으로 발음 되는 현상을 그대로 반영하여 표기한 것으로 일제 강점기의 지명 왜곡에 해당하는 지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명 정보를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여 『부산지명총람(1980)』(8:444~445)에 ‘이곡리는 이곡과 각암(角巖)마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법정리이다.’로 잘못 기록하고 있으며, 『한국향토문화대전』에서도 ‘마을 뒷산에 미역 바위라고 불리는 각이 진 바위가 있어 곽암(霍

宕) 마을이라 하였다고 한다. 각암(角岩) 마을이라고도 부른다.’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미역바위로 불리는 각이 진 바위’로 해석하는 것은 ‘각암(角巖)’을 ‘곽암’의 이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생긴 현상으로 역사적 지명 자료를 왜곡하여 오류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러한 지명 오류를 대상으로 해당 지명의 변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명 변천의 시기별 특성을 이해하여 더 이상의 오류가 재 생산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장의 마을 지명을 대상으로 문헌상의 지명 변천을 시기적으로 알아보고 이것이 현대의 자료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 지명 정보의 왜곡을 제시하고 그 교정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마을 지명으로 한정된 것은 문헌 자료의 균질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자료가 마을 지명에 대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산명이나 고개, 포구 등의 지명은 고지도에 주로 나타나고 근대 문헌 자료에는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역사적 연구가 어려울 경우가 많은 것도 그 이유이다.

기장군의 지명 변천은 이병운(2007)에서 자세한 자료를 통해 연구되었다. 그러나 연구된 문헌이 제한적이라 전반적인 지명의 변천을 설명하기에는 미흡하다. 즉, 연구 대상이 된 문헌은 『기장현읍지』(1832),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1904), 『구행정구역명칭일람』(1912),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1917), 『동래군지』(1937), 『지방행정구역요람』(2003)인데, 18세기에 기장 지명을 반영한 『호구총수』(1789)와 일 강점지 지명 개정 작업으로 만들어진 『조선지지자료』(1911), 『경상남도지지조서』(1914) 등의 자료가 누락되어 있다. 또, 지명의 변천을 앞선 지명 자료와 변화된 지명 자료 두 개를 비교하여 지명의 이름을 폐지한 것, 비슷한 이름으로 바꾼 것, 음은 같으나 표기가 달라진 것 등과 같은 단순한 비교에 그치고 있어 전반적 흐름을 확인하고 이해하기에

어렵게 제시되어 있다. 특히, 지명의 단순한 변화의 모습에만 치중하여 일제 강점기의 지명의 변화에 대한 해석 등과 같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제시하지 못한 것도 문제가 된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기장의 마을 지명이 나타난 모든 근대 문헌을 중심으로 시기적인 변천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역사적 변천을 살펴볼 문헌 자료는 다음과 같다.

연대	문헌명	기타
1789	호구총수 ¹⁾	
1832	기장현읍지	
1899	기장군읍지	1895년 지방 관제 개편. 面名만 나타남 ²⁾
1904	기장군가호안	
1911	조선지지자료	
1912	구한국행정구역명칭편람	
1914	경상남도지지조서	행정 구역 통폐합
1917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1937	동래군지	신구대조 지명을 그대로 수록 ³⁾
1980	한국지명총람	

1) 이 책은 1789년(정조 13) 규장각에서 총 9책으로 만들었다. 제1책은 1395년(태조 4)부터 1789년까지 전국의 호구 총수와 1789년 한성부의 인구 상황을 기록하였으며 제2~9책은 1789년 각 도의 인구 상황을 경기도·원춘도(原春道)·충청도·황해도·전라도·평안도·경상도·함경도 순으로 기재한 것이다.

2) 1899년 전국 읍지 상송령에 의해 만들어진 『機張郡邑誌』의 경우 방리조에 읍내면(邑內面), 동면(東面), 남면(南面), 상서면(上西面), 하서면(下西面), 상북면(上北面), 중북면(中北面), 하북면(下北面)이 나타나지만 구체적인 리명은 나타나지 않는다.

3) 일제강점기인 1937년에 文鎭周에 의해 東萊郷校에서 발행한 『東萊郡誌』 卷1~2가 있지만 여기에 실려 있는 기장면, 철마면, 정관면, 일광면, 장안면의 리명은 『신구대조(1917)』의 지명을 그대로 옮겨서 그 내용이 같다.



<그림 1>

이러한 문헌의 지명을 종합적으로 살펴 본 후에는 기장 마을 지명 정보가 나타난 『한국지명총람』(1980), 『부산지명총람』,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을 비교하여 살펴보고 마을 지명의 역사적 변천 정보의 오류를 확인할 것이다. 또, 지명의 변천 시기와 관련하여 1910년 이후 일제 강점기에 사용된 지명이 어떻게 바뀌어 나타나는지도 확인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일제 강점기의 흔적이 아직도 부산의 지명에 나타나 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II. 기장군 행정 지명의 변천 자료

기장군의 행정지명의 변천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해당 문헌에 나타난 동리명(洞里名)을 중심으로 1789년에 간행된 『호구총수(戶口總數)』부터 1980년에 간행된 『한국지명총람』까지 살펴본 지명은 아래의 표와 같다. 특히 표에서 동리(洞里)의 통폐합 관련 자료를 함께 제시하여 소멸된 지명도 함께 추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호구총수 1789년	기장 현읍지 1832년	기장군 가호안 1904년	조선지지 자료 1911년	구한국행정 구역명칭일람 1912년	경상남도 지리지 1914년	신구대조 1917년	한국지명 총람 1980년
南面	南面	南面	南面	南面	機張面	機張面	機張面
南面 內洞里		南面 內洞	南面 內洞	南面 內洞	機張面 內里	機張面 內里	機張面 內里
南面 堂祀里	南面 堂祠里	南面 堂祀里	南面 堂巳洞	南面 堂祀洞	機張面 堂社里	機張面 堂社里	機張面 堂社里
南面 非玉浦			南面 公須洞 非玉浦		機張面 侍郎里 (公須洞+ 東岩洞)	機張面 侍郎里 (公須洞+ 東岩洞)	機張面 侍郎里 (公須+ 東岩)
		南面 東巖里	南面 東巖洞	南面 東巖洞			
南面 松亭里	南面 松亭坊	南面 松亭里	南面 松亭洞	南面 松亭洞	機張面 松亭里 (松亭+佐洞)	機張面 松亭里 (松亭+佐 洞)	海雲臺區 松亭洞
南面 石山里	南面 石山坊	南面 石山里	南面 石山洞	南面 石山洞	機張面 石山里	機張面 石山里	機張面 石山里
東面	東面	東面	東面	東面	日光面	日光面	日光面
		東面 伊東洞	東面 伊東洞	東面 伊東洞		日光面 伊川里 (伊川洞+ 伊東洞)	
		東面 冬栢里	東面 冬栢洞	東面 冬栢洞	日光面 冬栢里	日光面 冬栢里	日光面 冬栢里
東面 萬花里	東面 萬花里	東面 萬化洞	東面 萬化洞	東面 萬化洞	機張面 萬化里	機張面 萬化里	機張面 萬化里 (동서+두 화+새터+ 이내바다)
東面 靑光里	東面 靑光坊	東面 靑光里	東面 靑光洞	東面 靑光洞	日光面 靑光里	日光面 靑光里	日光面 靑光里
		東面 淸江洞	邑內面 淸江洞	邑內面 淸江洞	機張面 靑江里 (武谷+新川)	機張面 靑江里	機張面 靑江里 (무곡+ 신천)
東面 花田里		東面 花田洞	東面 花田洞	東面 花田洞		日光面 花田里	日光面 花田里
東面 龍川里			東面 龍川洞	東面 龍川洞	日光面 龍川里	日光面 龍川里	日光面 龍川里

	東面 洪界里	東面 橫溪洞	東面 橫溪洞	東面 橫奇洞	日光面 橫溪里	日光面 橫溪里	日光面 橫溪里
東面 項串里		東面 鶴里	東面 項里洞	東面 項里洞	日光面 鶴里	日光面 鶴里	日光面 鶴里
東面 伊川里	東面 伊川里		東面 伊川洞	東面 伊川洞	日光面 伊川里	日光面 伊川里 (伊川洞+ 伊東洞)	日光面 伊川里
		東面 棗田洞	東面 棗田洞		日光面 三聖里 (棗田洞+後洞)	日光面 三聖里 (棗田洞+ 後洞)	日光面 三聖里
東面 後洞里	東面 後洞里	東面 後洞	東面 後洞	東面 後洞	日光面 三聖里		日光面 三聖里
		東面 校洞	東面 校洞		機張面 東部里		機張面 郊里
東面 古城里	東面 古城里			東面 古城洞			
東面 基浦			棋浦				
		東面 蓮花洞			機張面 蓮花里		機張面 蓮花里
	東面 鷺井里						
				東面 召洞			
邑內面	邑內面	邑內面	邑內面		機張面	機張面	機張面
		邑內面 武谷洞	邑內面 武谷洞		機張面 清江里		機張面 清江里
邑內面 新川里			邑內面 新川洞	邑內面 新川洞	機張面 新川里	機張面 新川里	機張面 新川里
		邑內面 武陽洞	邑內面 武陽洞	邑內面 武陽洞	機張面 大邊里 (龍岩+武陽)	機張面 大邊里 (龍岩+ 武陽)	機張面 大邊里 (무양+ 용암)
		邑內面 龍巖洞	邑內面 龍巖洞	邑內面 龍巖洞			
		邑內面 西巖洞	邑內面 西巖洞	邑內面 西岩洞	機張面 蓮花里 (新岩+西岩+ 武陽)	機張面 蓮花里 (新岩+西 岩+武陽)	機張面 蓮花里 (신암+서 암+무양)
		邑內面 新巖洞	邑內面 新巖洞	邑內面 新岩洞			

			邑內面 山下洞	邑內面 山下洞			
			邑內面 月田洞		機張面 竹城里		機張面 竹城里
			邑內面 竹城洞	邑內面 竹城洞	機張面 竹城里 (月田+豆湖)	機張面 竹城里 (月田+ 豆湖)	機張面 竹城里 (죽성+월 전+두호)
		邑內面 豆湖洞	邑內面 豆湖洞	邑內面 豆湖洞	機張面 竹城里		機張面 竹城里
邑內面 淸江里	邑內面 淸江坊	邑內面 淸江洞	邑內面 淸江洞		機張面 淸江里 (淸江洞+ 武谷洞)	機張面 淸江洞+武 谷+新川洞 一部)	機張面 淸江里 (무곡+ 신천)
邑內面 西部坊	邑內面 西部坊	邑內面 西部洞	邑內面 西部洞	邑內面 西部洞	機張面 西部里	機張面 西部里	機張面 西部里
邑內面 東部坊	邑內面 東部坊	邑內面 東部洞	邑內面 東部洞	邑內面 東部洞	機張面 東部里 (東部洞+西部 洞+麻洞+ 校洞)	機張面 東部里 (東部洞+ 西部洞+麻 洞+校洞)	機張面 東部里 (마동+서 부동+동면 +교동)
			邑內面 麻洞	邑內面 麻洞	機張面 東部里		機張面 東部里
		邑內面 校洞			機張面 校里	機張面 校里	機張面 校里
					機張面 新川里		機張面 新川里
邑內面 北門外里							
邑內面 東門外里		邑內面 東門里洞					
邑內面 土羅里	邑內面 土羅里坊	邑內面 土羅里洞			機張面 大羅里 (土羅洞+麻洞 +東部洞)	機張面 大羅里 (土羅洞+ 麻洞+東部 洞)	機張面 大羅里 (사라, 사아촌)
邑內面 鹽盆里							
邑內面 豆毛浦							
邑內面 船頭浦							

		上北面	上北面		長安面	長安面	長安面
中北面 長安坊	中下北面 長安坊	上北面 長安洞	上北面 長安洞	上北面 長安洞	長安面 長安里	長安面 長安里	長安面 長安里
中北面上 長安里							
			上北面 五洞		長安面 五里	長安面 五里	長安面 五里 신리 판곡 대룡
中北面 新里坊 新里	中下北面 新里坊	上北面 新里洞		上北面 新里洞			五里 신리
中北面 介川里		上北面 開川洞		上北面 開川洞			五里 개천 (개내)
中北面 板谷里				上北面 板谷里			長安 五里
中北面 大龍里				上北面 大用里			長安 五里
		上北面 車巖洞	上北面 車巖洞		長安面 孝岩里 (車岩洞+ 孝烈洞)	長安面 孝岩里 (車岩洞+ 孝烈洞)	長安面 孝岩里
中北面 龍所里		上北面 龍沼洞	上北面 龍沼洞	上北面 龍沼洞	長安面 龍沼里	長安面 龍沼里	長安面 龍沼里
中北面 基龍里		上北面 騎龍洞	上北面 奇龍洞	上北面 騎用洞	長安面 奇龍里	長安面 奇龍里	長安面 奇龍里
中北面 古洞里		上北面 古洞里	上北面 古洞	上北面 古洞	長安面 古里	長安面 古里	長安面 古里
中北面 蔚禮里		上北面 鳴禮洞	上北面 鳴禮洞	上北面 鳴禮洞	長安面 鳴禮里	長安面 鳴禮里	長安面 鳴禮里
		上北面 吉川洞	上北面 吉川洞	上北面 吉川洞	長安面 吉川里	長安面 吉川里	長安面 吉川里
		上北面 古武洞		上北面 左武洞			盤龍里 古武洞
		上北面 盤龍洞 2			長安面 盤龍里	長安面 盤龍里 (五洞+盤 龍里)	長安面 盤龍里
中北面 乾川里				上北面 下乾里			

上西面	上西面	上西面	上西面				鐵馬面
上西面 古村里	上西面 古村坊	南面 古村	上西面 古村洞	上西面 古村洞	鐵馬面 古村里 (凡谷洞)	鐵馬面 古村里	鐵馬面 古村里 (고촌, 화촌)
		上西面 長田洞	上西面 長田洞	上西面 長田洞	鐵馬面 長田里 (大谷+長田)	鐵馬面 長田里 (長田+ 大谷)	鐵馬面 長田里
上西面 新明里	上西面 新明里	南面 安平里	上西面 安平洞	上西面 安坪洞	鐵馬面 安平里 (神明洞)	鐵馬面 安平里 (安平+元 東面 萬化洞 一部)	鐵馬面 安平里
上西面 雲峰里	上西面 雲峰里	南面 雲峯里	上西面 雲峰洞	下西面 雲峰洞			海雲臺區 盤松洞
上西面 熊川里	上西面 熊川坊		上西面 熊川洞 곰늬	上西面 熊川洞	鐵馬面 熊川里	鐵馬面 熊川里	鐵馬面 熊川里
上西面 仇柒里	上西面 仇柒里	上西面 九七洞	上西面 九七洞	上西面 九七洞	鐵馬面 九七里 (九七+店峴 +新里)	鐵馬面 九七里 (九七)	鐵馬面 九七里
上西面 瓦余里	上西面 瓦余里	上西面 瓦余洞	上西面 瓦余洞	上西面 瓦余洞	鐵馬面 瓦余里	鐵馬面 瓦余里	鐵馬面 瓦余里
上西面 然貴里	上西面 然貴里	上西面 蓮龜洞	上西面 然九洞	上西面 然九洞	鐵馬面 蓮龜里 (蓮龜洞+軍位 洞+麻旨洞)	鐵馬面 蓮龜里	鐵馬面 蓮龜里 (마지 대곡)
上西面 麻旨里	上西面 麻旨里	上西面 麻旨洞	上西面 麻旨洞	上西面 麻旨洞			
		上西面 大谷洞	上西面 大谷洞 한실				
上西面 耳谷里	上西面 耳谷里		上西面 耳谷洞 귀실	上西面 耳谷洞	鐵馬面 耳谷里 (耳谷洞+ 藿巖洞)	鐵馬面 耳谷里 (角岩+ 耳谷)	鐵馬面 耳谷里
		上西面 藿巖里	上西面 角巖洞	上西面 藿巖洞			
		上西面 稷谷里					

上西面 朴吉里	上西面 朴吉里	上西面 栢吉洞	上西面 栢吉洞	上西面 栢吉洞	鐵馬面 栢吉里	鐵馬面 栢吉里	鐵馬面 栢吉里
		上西面 薇洞			鐵馬面 鐵馬里 (석길+미동+중리)		鐵馬面 鐵馬里
		上西面 石吉洞			鐵馬面 鐵馬里		鐵馬面 鐵馬里
		上西面 泉谷洞		上西面 火谷洞			
中北面			中北面		日光面	日光面	日光面
			中北面 新坪洞	中北面 新坪洞	日光面 新平里 (新坪洞)	日光面 新坪洞	日光面 新平里
		中北面 文中洞	中北面 文中洞 文浦	中北面 文中洞	日光面 文中里	日光面 文中里	日光面 文中里
		中北面 文東洞	中北面 文東洞	中北面 文東洞	日光面 文東里	日光面 文東里	日光面 文東里
中北面 佐洞里		中北面 佐洞	中北面 佐東洞	中北面 佐東洞	長安面 佐東里 (左東+德山)	長安面 佐東里 (左東洞+德山)	長安面 佐東里
	中下北面 佐村坊	中北面 佐川洞	中北面 佐川洞	中北面 佐川洞	長安面 佐川里	長安面 佐川里	長安面 佐川里
中北面 佐西里							
		中北面 仙巖洞	中北面 仙岩洞	中北面 仙岩洞	長安面 德仙里 (仙岩+內德)	長安面 德仙里 (仙岩+內德)	長安面 德仙里
中北面 院洞里		中北面 院洞	中北面 院洞	中北面 院洞	日光面 院里 (院洞里)	日光面 院里 (院洞+文中)	日光面 院里
		中北面 盤龍洞	中北面[盤龍洞	中北面 盤用洞		長安面 盤龍里	
中北面 柒浦		中北面 七岩洞	中北面 柒岩洞 柒浦	中北面 七岩洞	日光面 七岩里	日光面 七岩里	日光面 七岩里

		中北面 林浪洞	中北面 林浪洞	中北面 林浪洞	長安面 林浪里	長安面 林浪里 (林浪+ 月內)	長安面 林浪里
中北面月 內里 月內浦		中北面 月內洞	中北面 月內洞 月浦	中北面 月內洞	長安面 月內里	長安面 月內里	長安面 月內里
			中北面 德山洞	中北面 德山洞	長安面 佐東里		
		中北面 新硯洞					
中北面 古城里							
中北面 提內里							
中北面 新基里							梁山 新基里
中北面 山旨里 山旨坊							梁山 東面 余洛里 山旨
中北面 西洞里							
中北面 瓮店里							
中北面 火士乙浦			火浦				
中北面 二洞							
中北面 禿伊里 禿浦	中下北面 禿伊坊						
下北面	中下北面	下北面	下北面	下北面	東萊區 鼎冠面	鼎冠面	鼎冠面
			下北面 德田洞	下北面 德田洞	鼎冠面 龍岫里		鼎冠面 龍岫里
下北面 方谷里		下北面 芳谷洞	下北面 芳谷洞	下北面 芳谷洞	鼎冠面 芳谷里 (芳谷+德山)	鼎冠面 芳谷里 (芳谷+ 大田)	鼎冠面 芳谷里 (芳谷+ 大田)
下北面 大田坊 大田里	中下北面 大田坊	下北面 大田洞	下北面 大田洞	下北面 大田洞			鼎冠面 芳谷里

下北面 平田里		下北面 下平田里	下北面 平田洞	下北面 平田洞	鼎冠面 龍岫里 (佳洞+德田+ 平田+山幕)	鼎冠面 龍岫里 (德田+山幕+ 平田+佳洞)	鼎冠面 龍岫里
下北面 達山里		下北面 達山洞	下北面 達山洞	下北面 達山洞	鼎冠面 達山里 (陶店+達山+ 大田+塘谷)	鼎冠面 達山里 (陶店+達山+ 大田+塘谷)	鼎冠面 達山里
下北面 山幕坊 山幕里	中下北面 山幕坊	下北面 山幕里	下北面 山幕洞	下北面 山幕洞	鼎冠面 龍岫里		鼎冠面 龍岫里
下北面 茅田里		下北面 茅田洞	下北面 茅田洞	下北面 茅田洞	鼎冠面 茅田里		鼎冠面 茅田里
下北面 內德里			下北面 內德洞	下北面 內德洞	長安面 德仙里		長安面 德仙里
			下北面 屏山洞		鼎冠面 屏山里 (屏山+朴達 +於田)	鼎冠面 屏山里	鼎冠面 屏山里
下北面 佳洞里		下北面 佳洞	下北面 佳洞	下北面 佳洞	鼎冠面 龍岫里		鼎冠面 龍岫里
		下北面 梅谷洞	下北面 梅谷洞		鼎冠面 梅鶴里 (梅谷+上谷 +九木)	鼎冠面 梅鶴里 (梅谷+ 上谷)	鼎冠面 梅鶴里 (매곡동+ 상곡동)
下北面 禮東里 禮西里	中下北面 禮林坊	下北面 禮林洞	下北面 禮林洞	下北面 禮林洞	鼎冠面 禮林里	鼎冠面 禮林里	鼎冠面 禮林里
下北面 上谷里		下北面 上谷洞	下北面 上谷洞	下北面 上谷洞			鼎冠面 梅鶴里
		下北面 錦洞		下北面 錦洞			
下西面	下西面	下西面	下西面		鼎冠面	鼎冠面	鼎冠面
			下西面 月坪洞		鼎冠面 月坪里	鼎冠面 月坪里	鼎冠面 月坪里
下西面 立石里	下西面 立石坊	下西面 立石里	下西面 立石洞	下西面 立石洞	鐵馬面 送亭里 (立石洞)	鐵馬面 送亭里 (立石洞)	鐵馬面 送亭里
下西面 末田洞	下西面 末田里	下西面 斗田	下西面 斗田洞	下西面 斗田洞	鼎冠面 斗明里 (斗田洞+ 夫明洞)	鼎冠面 斗明里 (斗田洞+ 大明洞)	鼎冠面 斗明里 (두전동+ 대명동)

		下西面 富明里	下西面 夫明洞	下西面 富鳴里			
		下西面 林基里	下西面 林基洞	下西面 林基洞	鐵馬面 林基里	鐵馬面 林基里	鐵馬面 林基里
		下西面 林谷 下西面 林谷洞	下西面 林谷洞	下西面 林谷洞	鼎冠面 林谷里 (林谷洞+ 黃橋里)	鼎冠面 林谷里	鼎冠面 林谷里
下西面 新驛里	下西面 阿月里	下西面 河月村					
				下西面 新化洞			

기장의 동리명 변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현재 기장 동리명의 지명 정보를 담고 있는 『한국지명총람(1980)』의 지명 해석과 자료는 일제 강점기의 변화된 지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심지어 바뀐 한자까지 그대로 옮긴 것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일광면 신평동의 경우, 『조선지리지자료(1911)』에서 新坪洞으로 나타나고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新平里로 바뀐 이후에 1917년 다시 新坪洞으로 바뀌었지만 한국지명총람에서는 新平里로 나타난다. 이것은 1914년에 바뀐 지명 표기를 그대로 이어간 것이다.

조선지리지자료 1911년	경상남도지리지조서 1914년	신구대조 1917년	한국지명총람 1980년
中北面 新坪洞	日光面 新平里(新坪洞)	日光面 新坪洞	日光面 新平里

특히 기장면 당사리의 경우 『호구총수』에서는 ‘堂祀’ 『기장현읍지』에는 ‘堂祠’ 『기장군가호안』에서는 ‘堂祀’로 나타난다. 그런데 『조선지리지자료』에서는 ‘堂巳’, 1914년 『경상남도지리지조서』에서는 ‘堂社’로 바뀌었는데, 이것이 『한국지명총람』에도 1914년에 바뀐 ‘堂社’가 그대로

나타난다.

조선지리지자료 1911년	경상남도지리지조서 1914년	신구대조 1917년	한국지명총람 1980년
南面 堂巳洞	機張面 堂社里	機張面 堂社里	機張面 堂社里

둘째, 기장의 근대 지명은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1904)』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面의 이름은 읍을 중심으로 읍내, 상하 동서 남북 등 과거의 형식으로 그대로 나타난다. 이것은 『조선지리지자료』에 이어진다. 그러나 1914년 행정 구역 개편에 따라 ‘기장, 장안, 정관, 철마’ 등의 지역 중심지의 면명으로 변경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광면의 경우, 중심지가 면명으로 명명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일광면의 일광은 일광산(日光山)에서 유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면명 부여 방식의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에서 읍지의 지명이 많이 바뀌어 나타난다. 이는 1895년 고종32년 5월 전국을 23부로 지방관제를 개편하고 난 뒤 과거의 『기장현읍지』의 지명과 차이가 나는 것은 다음과 같다.

下西面 阿月里 → 下西面 河月村 下西面 末田里 → 下西面 斗田
上西面 朴吉里 → 上西面 栢吉洞 上西面 然貴里 → 上西面 蓮龜洞
上西面 仇柒里 → 上西面 九七洞 南面 堂祠里 → 南面 堂祀里
東面 萬花里 → 東面 萬化洞

또한 『호구총수』와 한자 표기가 달라진 지명은 다음과 같다.

東面 項串里 → 東面 鶴里 中北面 龍所里 → 上北面 龍沼洞
中北面 基龍里 → 上北面 騎龍洞

여기서 중복면 용소리의 경우, 『호구총수』에 ‘용소(龍所)’로 기록되었지만 후대에 ‘용소(龍沼)’로 바뀌어 있다. 지명부류칭인 ‘소(所)’는 고려시대부터 조선 초기에 걸쳐 광석을 캐거나 수공품을 만드는 일을 하던 특수 행정 구역을 말하는 곳이거나 단순히 물이 모인 곳이라는 潭·湫·淵을 뜻하는 소[거성]를 뜻하는 고유어 부류칭일 수 있다. 『훈몽자회』(초 상:3)에 ‘潭 소 담 水深處 爲潭 湫 소 추 龍所居’로 나타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용소의 소(所)는 물이 고인 곳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그렇다면 후대에 고유어 소를 늪,沼자를 사용하여 표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⁴⁾

넷째,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서 마을이름을 정할 때 사용했던 방법은 큰 마을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한 것과 두 마을의 이름을 합쳐 만든 것, 해당 지역에 유명 지물을 이용한 것 등의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그러나 이와 상관없이 새롭게 마을명을 만들어 사용한 것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鼎冠面 斗明里는 斗田洞과 夫明洞을 합친 곳인데, 두전동의 두와 부명동의 명을 합쳐 새롭게 만든 지명 유형에 속하고 鼎冠面 林谷里는 林谷洞과 黃橋里를 합한 것인데, 큰 마을이었던 임곡을 마을 이름으로 한 유형이다. 또한 機張面 侍郎里의 경우 公須洞과 東岩洞을 합한 것이지만 이 지역에 있던 시랑대(侍郎臺)를 따서 시랑리로 명명한 유형이다. 그러나 鼎冠面 龍岫里는 佳洞과 德田, 平田, 山幕을 합친 것인데, 龍岫[용의 굴]라는 새로운 지명으로 명명한 것이고, 鼎冠面 梅鶴里도 梅谷과 上谷, 九木 등을 합한 것인데 梅谷과 연관이 있는 梅鶴이라는 지명으로 명명하였다.

4) ‘소’가 고유어이고 이것이 한자로 옮기면서 潭, 湫, 淵으로 표기되었다는 것은 박병철(2020:451~469)를 참고할 것.

Ⅲ. 기장 행정 지명 변천 정보 분석

1. 기장읍 당사리(堂社里)

기장군 기장읍 ‘당사리’의 경우 다음과 같은 변화를 거친다.

호구총수 1789년	기장현읍지 1832년	기장군 가호안 1904년	조선지지 자료 1911년	경상남도 지지조서 1914년	신구대조 1917년	한국지명 총람 1980년
南面 堂祀里	南面 堂祠里	南面 堂祀里	南面 堂巳洞	機張面 堂社里	機張面 堂社里	機張面 堂社里

당사리는 1789년 『호구총수』에서 ‘堂祀里’로 나타났다가 1832년 『기장현읍지』에서는 ‘堂祠里’로 나타난다. 그리고 1940년의 『기장군 가호안』에서는 ‘堂祀里’로 나타나고, 1911년 지명 자료인 『조선지지 자료』에서는 堂巳洞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일제의 지명 개정 때인 1914년의 『경상남도지지조서』에서부터는 ‘堂社里’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1917년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에 그대로 이어지고 1980년의 『한국지명총람』에까지 이어진다.

여기서 신당을 의미하는 당사는 우리 지명에서는 堂祠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혹 신당을 堂祀로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堂社’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일본에서는 신을 섬기는 집을 ‘神社’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이를 따라 당집을 ‘堂社’로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현재의 ‘堂社里’는 일제 강점기에 표기된 지명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지명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현재 지명 정보에는 역사적 지명 정보까지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지명총람(1980)』(9:252)에서는 다음과 같이 ‘당사리’에 대한 설

명이 나타난다.

당사리(堂社里) 본래 기장군 남면 지역으로서 신당이 있으므로 당사 또는 당사동이라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당사리라 하여 동래군 기장면에 편입되었으며(하락)

여기서는 한역 지명 변화를 설명하지 않고 있어서 지명의 변천의 모습을 살피기 힘들게 되어 있다. 또, 『부산지명총람(2001)』(7:71)에서의 ‘당사리’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옛이름은 알 수 없다. 당사리(堂社里)는 초기에는 《기장현읍지》에 남면 당사(堂祠)리로 기록되어 있다. 1914년 3월 1일 군면 정비 때 동래군 기장면 당사리(堂祠里)가 되었다. 당사(堂祠)나 당사(堂社)는 발음도 같고 그 뜻도 같다. 당사(堂社)는 토지(土地)나 부락의 수호신을 모시고 있는 신단(新堂)이 있는 곳을 말하는데 보통 큰 고목 밑에 당집(堂祠)이라고 하는 신당이 있다.(하락)

여기서 1789년 『호구총수』에서 ‘堂祀里’의 자료를 시발점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옛이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었다. 또, 일제 강점기 한자 표기의 변화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堂祀’와 ‘堂社’의 표기를 발음과 뜻이 같은 것으로만 설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최근의 정보인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의 기장군 당사리의 정보이다. 지명 정보를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당사(堂社)라는 지명은 이곳에 있던 당집에서 유래된 것으로 전해진다. 당사(堂祀)라고 표기하기도 한다. 당사는 토지나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고 있는 신당(神堂)이 있는 곳을 말한다. 당사리(堂祠里)는

『호구총수(戶口總數)』[1789]에는 기록이 나타나지 않고, 『기장현읍지(機張縣邑誌)』에 “기장현 남면에 당사리가 있다. 당사리는 현의 남쪽 14리에 있다.”라는 기록으로 처음 확인된다. 1895년(고종 32)에는 기장군 남면 당사동이었으며, 1914년 기장군이 폐군되며 동래군 기장면 당사리가 되었다. 1973년 경상남도 양산군에 통합되었으며, 1980년 기장면이 기장읍으로 승격되었다. 1986년 양산군 동부출장소 관할이 되었다가 1995년 부산광역시에 편입되며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당사리가 되었다.

여기서 『호구총수』에서 당사리의 기록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한 점은 역사적 지명 자료를 충실히 검토하지 않은 오류이며, 당사(堂社)와 당사(堂祀)를 같은 지명으로 본 점 등 『부산지명총람』의 설명 정보를 그대로 옮기는데 그치고 있다. 정확한 지명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 『부산지리지』에 나타난 ‘堂巳洞’와 같은 표기오류를 지적하는 것이 일제 강점기의 지명 오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2. 기장읍 만화리(萬化里)

만화리의 지명 변천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호구총수 1789년	기장현읍지 1832년	기장군 가호안 1904년	조선지리지 자료 1911년	경상남도 지리지 1914년	신구대조 1917년	한국지명 총람 1980년
東面 萬花里	東面 萬花里	東面 萬化洞	東面 萬化洞	機張面 萬化里	機張面 萬化里	機張面 萬化里

만화리의 경우 『호구총수』에서는 萬花里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지명은 1832년 『기장현읍지』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으나 1904년에 간

행된 『기장군가호안』에서 ‘花’가 ‘化’로 표기되어 萬化里로 나타난다. 이것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1980년 『한국지명총람』(9:252) 만화리(萬化里)의 정보에는 다음과 같다.

본래 기장군 동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통폐합에 따라 동서, 두화, 새터, 이내바다를 병합하여 이곳에 있는 만풍정리와 두화의 이름을 따서 만화리라 하여 동래군 기장면에 편입되었다가 1973년 동래군이 폐지됨에 따라 양산군 기장면에 편입됨

여기서 1914년 ‘만풍정리’와 ‘두화’ 등의 두 지명을 앞 글자를 따서 ‘만화’의 지명을 만든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가 없다. 만화리는 이미 1789년 『호구총수』에서 나타나고 있음으로 보아 만화리의 지명 연원을 1914년으로 보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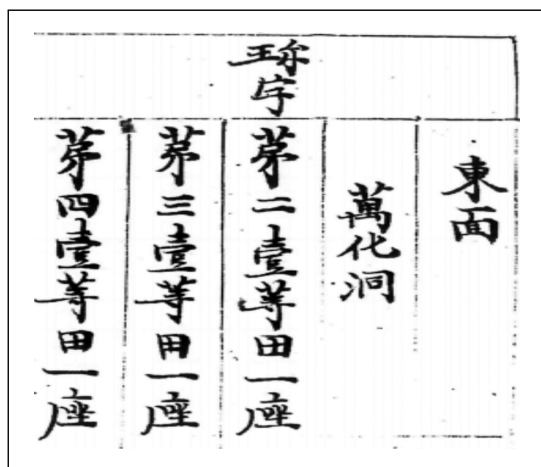
또 『부산지명총람』(7:126)의 만화리(萬化里)의 지명 정보를 살펴보자.

만화리는 동서(東西), 두화(斗禾) 마을로 법정리를 형성하고 있다. 만화(萬花)가 아닌 만화(萬化)란 아주 보기 드문 마을이다.⁵⁾ 『기장현 읍지』 읍내면 만화동(萬花里)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 동면에서는 만화동(萬花洞)으로 기록되어 있다. 1914년 3월1일 군면정비 때 동래군 기장면 만화리(萬花里)로 불리어지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문헌의 지명정보를 왜곡했다는 점이다. 『기장군가호

5) 원문에는 ‘만화(萬花)가 아닌 만화(萬花)’ 즉, 동일 한자로 제시되어 있으나 이는 오타이다.

안』에서는 萬花洞이 아니라 萬化洞으로 나타나고, 1914년 이후 지명 정보에는 만화리(萬花里)로 기록된 적이 없다. 이는 다음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 만화동

『부산향토문화전자대전』의 ‘만화리’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형성 및 변천] 만화리(萬化里)는 『호구총수(戶口總數)』[1789]에 기장현 동면 만화리로 나타난다. 1895년(고종 32)에 기장군 동면 만화동이 되었다가, 1914년 동래군 기장면 만화리가 되었다. 1973년 경상남도 양산군에 편입되었으며, 1980년 기장면이 기장읍으로 승격하였다. 1986년 양산군 동부출장소 관할이 되었다가, 1995년 부산광역시에 편입되며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만화리가 되었다.

이러한 자료의 문제는 마을이름의 한자 지명 자료 제시 없다는 점이

다. 한자 지명 정보는 지명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에 불구하고 이를 생략하여 지명의 변천을 확인할 수 없다. 특히 만화동(萬化洞)이 1904년 이후 나타난 일제식 지명 표기라는 점을 누락한 것도 문제가 된다.

3. 장안읍 용소리(龍沼里)

장안읍의 용소리의 지명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호구총수 1789년	기장현읍지 1832년	기장군 가호안 1904년	조선지지 자료 1911년	경상남도 지리지 1914년	신구대조 1917년	한국지명 총람 1980년
中北面 龍所里	없음	上北面 龍沼洞	上北面 龍沼洞	長安面 龍沼里	長安面 龍沼里	長安面 龍沼里

용소리는 『호구총수』에서는 용소리(龍所里)로 표기되어 나타난다. 용소(龍所)의 ‘소’는 고유어를 한자로 표기한 것으로 ‘澤, 沼, 淵’ 등의 의미를 포괄하는 용어이다.⁶⁾ 『호구총수』는 고유어 ‘소’를 차음표기하여 ‘所’로 나타낸 것인데, 후대 『기장군가호안』에서부터 ‘沼’로 바뀌어 표기하였다.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6) 박병철(2020:451~469)에서는 『용비어천가』(3:23)의 ‘·쇠벼·락’가 ‘淵遷’으로 표기되는데, 여기서 ‘쇠·소’가 淵에 대응하고 ‘벼·락’가 遷에 대응하여 나타나는 등 언해문이 나 역사적인 문헌자료에서 고유어 ‘소’가 이른 기기에 존재했던 우리말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문세영의 『조선어사전』에서부터 고유어 ‘소’를 한자어 ‘沼’로 제시되어 있던 것이 그대로 답습되어 『표준국어대사전』, 『한국어대사전』에 이르기까지 한자어로 제시된 것이다. ‘소’를 고유어로 인식한 것은 방중현의 『고어재료사전』과 남광우의 『고어사전』, 유창돈의 『이조어사전』 등인데 여기서는 표제어 ‘·소하’으로 제시하여 ‘소’가 ‘하’종성을 가진 고유어임을 확인하고 있다.



<그림 3> 『호구총수』 용소리

이에 대해 『한국지명총람』(9:308)에서는 ‘용소리(龍沼里)’를 다음과 같은 정보로 나타내고 있다.

본래 기장군 상북면 지역으로서 용소가 있으므로 용소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용소리라 해서 동래군 장안면에 편입되었다가, 1973년 동래군이 폐지됨에 따라 양산군에 편입됨

여기서 문제는 『호구총수』에서 지명의 한자 표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과 관할 면의 변천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호구총수』에는 중북면에 속해 있었다는 기록이 보이므로 이를 확인하여 중북면, 상북면, 장안면, 장안읍 등의 변화를 제시해야 정확한 정보가 된다.

『부산지명총람』(7:314)의 ‘용소리’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옛이름은 뚜렷하게 전해오는 바가 없다. 장안의 진산인 삼각산(三角山)에서 발원하여 마을 앞을 지나 반룡에서 장안천과 합류하는 용소천은 상류 곳곳에 작은 폭포가 소(沼)를 이루고 있고 이곳에 용이

살았다는 전설을 간직한 용담(龍潭)이라는 큰 웅덩이가 있다.[중략]
용소리는 『기장현읍지』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
호안》에 상북면 용소동(龍沼洞)이라는 동명이 처음으로 나타난다.
1914년 3월 1일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동래군 장안면 용소리였다가
1973년 7월 1일부터 양산군 소속이 되고[하략]

여기서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에 ‘용소리’가 처음 언급되었다는 정
보를 제공하지만 이는 오류이다. 즉,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보다 앞
선 시기의 『호구총수』의 ‘용소리’에서 동명이 처음 나타나기 때문이다.
『부산향토문화전자대전』의 ‘용소리’ 정보는 다음과 같다.

[유래] 용소리(龍沼里)라는 지명은 마을을 지나는 용소천과 관련
이 있다. 용소천은 장안의 진산인 삼각산(三角山)[472m]에서 발원하
여 마을 앞을 지나 반룡에서 장안천과 합류한다. 상류 곳곳에 작은 폭
포가 소(沼)를 이루고 있고, 용이 살았다는 전설을 지닌 용담(龍潭)
[깊게 파인 물웅덩이]이 있다.

[형성 및 변천] 용소리는 본래 기장현에 속하였다가 1599년(선조
32) 기장현이 폐지되며 울산군에 합속되었다. 1681년(숙종 7) 다시
기장현으로 복귀하였다. 『호구총수(戶口總數)』[1789]에 기장현 중북
면 용소리로 기록되어 있으며, 1895년 기장군 상북면 용소동이 되었
다가, 1914년 동래군 장안면 용소리가 되었다. 1973년 동래군이 폐군
되면서 양산군에 통합되었고[하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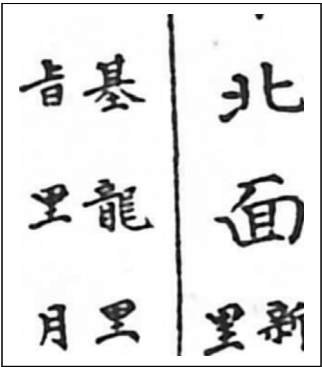
위의 정보 중에서 『호구총수』의 한자의 표기가 제시되어야만 한자
지명의 변천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1895년의 지명 변화는 『기
장군가호안』이라는 구체적인 자료를 언급해야 정확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4. 장안읍 기룡리(奇龍里)

장안읍의 기룡리의 지명 변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호구총수 1789년	기장현읍지 1832년	기장군 가호안 1904년	조선지지 자료 1911년	경상남도 지지조서 1914년	신구대조 1917년	한국지명 총람 1980년
中北面 基龍里	없음	上北面 騎龍洞	上北面 奇龍洞	長安面 奇龍里	長安面 奇龍里	長安面 奇龍里

『호구총수』에서는 중북면 기룡리(基龍里)로 나타나고 이후 『기장군
가호안』에서 상북면 기룡동(騎龍洞)으로 나타난다.



<그림 4> 『호구총수』 기룡리

일제강점기인 1911년 『조선지지자료』에서 처음 상북면 기룡동(奇
龍洞)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지금의 기룡리(奇龍里)의 한자 표기
는 일제 강점기에서 비롯한 것이 된다. 이러한 사실은 1895년경 측량된
구한말 한반도 지도에 기룡리가 騎龍(キロン)으로 표기된 것으로 확인

된다.

기룡리에 대한 『한국지명총람』(9:305)의 정보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기룡리(奇龍里) 본래 기장군 상북면 지역으로서 기룡골 또는 기룡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기룡리라 해서 동래군 장안면에 편입되었다가 1973년 동래군이 폐지됨에 따라 양산군에 편입됨.

위 지명 정보는 『호구총수』의 중구면 기룡리의 정보를 누락했기 때문에 본래 상북면 지역이었다는 오류가 나타나고 있다. 또 지명의 한자 표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지명의 변천의 모습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다른 지명 자료인 『부산지명총람』(7:245~246)에 나타난 지명 정보는 다음과 같다.

기룡리는 기룡마을과 하근마을을 합하여 법정리를 이루고 있다. 고래라는 조그마한 자연마을도 여기에 속해 있다. 장안천의 남북 중간지점에 위치한다. 《기장현읍지》에 기룡이라는 마을의 명칭은 나타나지 않는다.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 상북면 기룡동(騎龍洞)이라는 동명이 처음으로 나타난다. 1914년 3월 1일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동래군 장안면 기룡리(騎龍里)로 되었다. [중략] 1900년대 초기에는 기룡(騎龍)리라고 썼으나 뒤에 기룡(奇龍)리로 쓰게 되었는데 그 내력과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길이 없다.

여기서 기룡동의 동명은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에 처음 나타난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 『호구총수』에 중북면 기룡리(中北面 基龍里)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또,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의해 만들어진 지명은 ‘기룡리(騎龍里)’로 제시하고 있으나 ‘기룡리(奇龍里)’의 오류이다. 그리고 1900년대 기룡(騎龍)리를 기룡(奇龍)리로 쓰게된 시기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기룡(奇龍)리가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조선지리지』이므로 1911년 전후로 추정될 수 있다.

『부산향토문화전자대전』에 나타난 ‘기룡리’의 정보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유래] 기룡(寄龍) 마을의 기(奇)는 ‘키’, ‘크’의 차음 표기로 ‘크다’의 의미이다. ‘용 룡(龍)’ 자는 ‘미리’로서 머리의 의미로 두 글자를 합하면 큰 머리를 뜻한다. 장안천 변의 마을 이름은 모두 용(龍)자와 건(乾)자가 들어가는데, 이에 기룡은 장안천 변의 큰 마을이라는 뜻이다.

[형성 및 변천] 조선 시대에 기룡리는 기장현에 속하였다. 1599년(선조 32) 기장현이 폐지되며 울산군에 합속되었고, 1681년(숙종 7) 다시 기장현으로 복귀하였다. 『호구총수(戶口總數)』[1789]에는 기장현 중북면 기룡리로 기록되어 있다. 1895년(고종 32) 기장군 상북면 기룡동이 되었고, 1914년 동래군 장안면 기룡리가 되었다. 1973년 동래군이 폐군되면서 경상남도 양산군에 통합되었다.

여기서 기룡리의 유래에 나타난 정보에 기룡마을을 ‘기룡(寄龍)’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문헌 자료에는 ‘寄’로 나타나는 정보는 없으므로 이는 오류이다. 또 『호구총수』의 기룡리의 한자를 밝혀야 ‘基龍→騎龍→奇龍’의 지명 변천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으며 지명의 연원에 대한 접근과 해석을 가능할 수 있다.⁷⁾

7) 한자로 표기된 지명은 고유 지명의 연원이 정확하게 밝혀져야 차훈표기나 차음 표기의 오류가 검증될 수 있다. 한자 지명의 시대적 변천은 표기의 다름을 비교할 수 있고, 해당 표기가 나타난 시기는 증명될 수 있으나 어느 것이 오류 지명인가하는 문제는 치

5. 철마면 구칠리(九七里)

철마면 구칠리의 지명 변천 정보는 다음과 같다.

호구총수 1789년	기장현읍지 1832년	기장군 가호안 1904년	조선지지 자료 1911년	경상남도 지리지 1914년	신구대조 1917년	한국지명 총람 1980년
上西面 仇柒里	上西面 仇柒里	上西面 九七洞	上西面 九七洞	鐵馬面 九七里 (九七+店 峴+新里)	鐵馬面 九七里	鐵馬面 九七里

구칠리는 원래 ‘구칠(仇柒)’로 표기된 지명으로 나타나며 1904년 『기장군가호안』에서 ‘구칠(九七)’로 바뀌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구칠, 점현, 신리 등의 마을을 통합하여 동래군 철마면 九七里로 확대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지명총람』(9:317)에 나타난 ‘구칠리(九七里)’의 지명 정보는 다음과 같다.

본래 기장군 상서면의 지역으로서 구칠동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함에 따라 구칠리라 해서 동래군 철마면에 편입되었다가 1973년 동래군이 폐지됨에 따라 양산군에 편입됨.

여기서 구칠동에 대한 역사적 변천의 설명이 부족하고 원래 표기된 지명이 ‘구칠(仇柒)’임을 밝혀 두어야 지명 해석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

밀한 검증이 있고 난 후에 밝혀질 문제이다. 왜냐하면 가장 앞선 시기의 『호구총수』의 기록 지명 이전의 지명 표기가 확인되거나 대응되는 고유 지명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는다. 또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제시할 필요도 있다.

『부산지명총람』(8:358~359)에 나타난 ‘구칠리[九七里]’의 정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칠리(九七里)는 구칠(九七)·점현(店峴)·신리(新里) 마을을 합하여 법정리를 이루고 있다. 구칠리와 함께 이곡리(耳谷里)⁸⁾의 여러 마을은 모두 갈치재 아래에 있는 마을로서 갈치재와 관련되어 생긴 이름이다. 구칠리는 구칠(仇柒)리라고 하였다가 뒤에 구칠리(九七理)⁹⁾로 되었고 속명으로 구칠(九柒)·구칠(邱柒) 등으로 쓰기도 하였다. [중략] 이곳의 주민들은 임진왜란 후 동래 정(鄭)씨가 정착하여 살아왔으며 옷나무가 많아서 옷밭이라 하였다. 그후 옷나무 아홉 그루가 있었기에 마을이름을 구칠(九漆)이라 하였고, 그 옷나무가 언덕 위에 자생하고 있으므로 구칠(邱漆)이라 하기도 하였다. 옷은 사람에게 옷독을 입게 하는 원수 같은 나무라 하여 원수 구(仇)자로 구칠(仇漆)이라 하였다 전한다. 후대에 와서 쓰기도 편하고 소리가 같은 구칠(九七)로 표기하였다고 한다.

구칠리는 《기장현읍지(1831)》 기장현 상서면 구칠리(仇柒里)였다. 따라서 행정구역 명칭은 18세기 이전에 존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1831)》에는 기장군 상서면 구칠동(九七洞)으로 변경되었다. 일제 강점기인 1914년 3월 1일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동래군 철마면 구칠(九七)리가 되었고 [하략]

여기서도 『호구총수』의 정보는 누락되어 있으며, 구칠 점현, 신리 마을의 병합에 따른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혀줄 필요가 있다. 또, 어원 정보로 나타난 ‘九柒’과 ‘邱柒’ 등의 표기 지명이 나타난 출처를 밝혀 두어

8) 원문은 이곡리(耳谷理)로 되어 있다. 理는 리의 오기이다.

9) 원문은 구칠리(九七理)로 되어 있다. 理는 리의 오기이다.

야 한다. 기존의 문헌 기록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九柒과 邱柒로 해석된 아홉 그루 옷나무, 언덕에 자생하는 옷나무 등의 지명 연원은 민간어원으로 확인된다.

『부산향토문화전자대전』에 나타난 ‘구칠리[九七里]’의 지명 정보는 다음과 같다.

[형성 및 변천] 『호구총수(戶口總數)』[1789]에는 기장현 상서면 **구칠리로 나타나며**, 1895년(고종 32) 동래부 기장군 상서면 구칠동이 되었다. 1914년 동래군으로 귀속되며 철마면 구칠리가 되었고, 1973년 동래군이 양산군에 병합되면서 경상남도 양산군 철마면에 속하였다. 1986년 양산군 동부출장소가 설치되면서 그 관할이 되었다가 1995년 부산광역시로 편입되면서 기장군이 복군되어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구칠리가 되어 오늘에 이른다.

[유래] 원래는 구칠리(仇柒理)라는 한자어를 사용하였으나 뒤에 구칠리(九七里)라고 하였다. 이칭으로 구칠(九柒)·구칠(邱漆) 등을 사용한다. 이 다양한 표기에 대해 주민들은 이곳에 큰 옷나무 아홉 그루가 있었기에 마을 이름을 구칠(九漆)이라 하였고, 그 옷나무가 언덕 위에 자생하고 있으므로 구칠(邱漆)이라 하였다고 전한다. 또 옷독으로 원수 같은 나무라 하여 ‘원수 구(仇)’자로 구칠(仇漆)이라 하였으며, 후에 구칠(九七)로 표기가 변하였다고 전하지만 실제로는 인근의 갈치재와 관련된 지명으로 보고 있다. 철마면과 기장읍을 연결하는 큰 고개인 갈치재는 구칠재로도 불렀는데, 이 두 명칭 모두 거칠재의 변음으로 본다. 이때 거칠의 의미는 원래 ‘거칠 황(荒)’이 아니라 ‘클 대(大)’의 뜻을 담고 있어 큰 고개를 뜻한다고 국어학계에서는 해석한다.

위의 정보에는 구칠리의 한자 표기에 대한 지명 정보가 부족하다. 또한 시기적으로 ‘구칠(仇柒)’에서 ‘구칠(九七)’로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밝혀 두어야 지명 해석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 어원 정보에서 『부산지명총람』과 마찬가지로 이칭인 구칠(九柒), 구칠(邱漆)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없이 한자 견인 지명 연원을 소개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6. 철마면 연구리

철마면 연구리의 지명 변천의 지료는 다음과 같다.

호구총수 1789년	기장현 읍지 1832년	기장군 가호안 1904년	조선지지 자료 1911년	경상남도지리지 1914년	신구대조 1917년	한국지명총람 1980년
上西面 然貴里	上西面 然貴里	上西面 蓮龜洞	上西面 然九洞	鐵馬面 蓮龜里 (蓮龜洞+軍位洞 +麻旨洞)	鐵馬面 蓮龜里	鐵馬面 蓮龜里 (마지+대곡)
上西面 麻旨里	上西面 麻旨里	上西面 麻旨洞	上西面 麻旨洞			

연구리는 『호구총수』에서 ‘연구리(然貴里)’로 나타나지만 『기장군가호안』에서 ‘蓮龜洞(연구동)’로 바뀌어 나타난다. 이러한 변천에서는 ‘연구’라는 동일한 음을 다른 한자로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11년 『조선지지자료』에서 ‘연구동(然九洞)’으로 변화한다. ‘연구’에서 ‘연구’로의 변화는 ‘龜’이 두 가지 음으로 읽힌 것에 기인한다. 즉, 일제 강점기에 ‘연구’가 다른 음으로 읽어 ‘연구’로 기록한 것이다. 이러한 지명이 다시 1914년 지명 개편에서 연구리(蓮龜里)로 바뀌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러한 정보에서 ‘연구리’는 일제 강점기에 변화된 지명을 그대로 반영한 지명인 것이다. 지명의 한자를 ‘蓮龜里’로 표기한다면 ‘연구리’로 표기해야 지명의 전통성을 유지할 수 있다. 또, 『경상남도지리지』에는 연구리가 蓮龜洞, 軍位洞, 麻旨洞을 병

합한 것으로 나오지만 『신구대조』에는 이러한 정보가 나타나지 않고 『한국지명총람』에서는 麻旨와 大谷을 병합한 것이라는 정보로 바뀌어 나타난다.

『한국지명총람』(9:318)에서 연구리(蓮龜里)에 대한 지명 정보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본래 기장군 상서면의 지역으로서 연구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통폐합에 따라 마지동, 대곡동 일부를 병합하여 연구리라 해서** 동래군 철마면에 편입되었다가 1973년 동래군이 폐지됨에 따라 양산군에 편입됨.

위의 지명 정보에는 ‘상서면 연구’라고 하였다는 정보가 있지만 원래 지명은 ‘상서면 연구’로 제시해야 정확하다. 또한 1914년의 마을 통합 정보가 마지, 대곡으로 나타나 있지만 원래 蓮龜洞, 軍位洞, 麻旨洞을 합한 지명이었음을 밝혀야 했다.

『부산지명총람』(8:402~403)에 나타난 ‘연구리(蓮龜里)’의 지명 정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리(蓮龜里)는 구림(龜林)마을과 마지(麻地)¹⁰⁾마을을 합한 법정동이다. 옛날은 만구(萬龜)리라 하였다. 만구리의 구(龜)자는 구칠재에서 유래한 이름이다.[중략] 그러므로 만구리는 구칠재의 만다리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만구리를 후에 연봉(蓮峰)리라 하였다. 마을산이 연꽃처럼 생겼다 하여 연봉산이라 하였고 마을 이름도 여기서 유래하였다. 연구리는 연봉리에서 연(蓮)을 따고 구림리에서 구(龜)자를 따서 연구리라는 합성된 이름이 된 것이다.[중략] 이곳 주민들은 옛날 연구리 본동에 연못(蓮池)이 있었고 연꽃이 만발한 연못에

10) 마지마을의 ‘麻地’는 ‘麻旨’의 오기이다.

거북이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연구(連龜)라고 하였다 한다.[중략]

연구리는 《기장현읍지(1831)》 상서면(上西面)의 마지리(摩旨里)¹¹⁾와 연귀리(然貴里)에서 유래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마을은 18세기 이전에 형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1904)》에는 상서면 마지동과 연구동이 기록되어 있는데, 연구동은 연귀동과 일정한 연관을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동은 연귀리의 마을 명칭에서 좋은 뜻과 마을 뒷산의 연꽃과도 일정한 연관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일제 강점기인 1914년 3월 1일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동래군 철마면 연구리가 되었다. 반면 마지동은 연구리의 자연 마을로 변하였다.

위의 지명 정보에는 연구리의 연원에 대하여 ‘연봉리에서 연(蓮)을 따고 구림리에서 구(龜)자를 따서 연구리라는 합성된 이름’이거나 ‘연못(蓮池)이 있었고 연꽃이 만발한 연못에 거북이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연구(連龜)’라는 한자에 견인된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선대 지명인 ‘然貴里’를 고려할 때 오류이다. 또, 기록에 근거가 없는 ‘만구(萬龜)’라는 지명도 제시하고 있다. 또, 연구리가 《기장현읍지(1831)》 상서면(上西面)의 마지리(摩旨里)와 연귀리(然貴里)에서 유래된 것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일제 강점기의 지명 개편 자료에는 연구동(連龜洞)과 군위동(軍位洞), 마지동(麻旨洞)이 통합한 것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론은 오류이다. 그리고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1904)》에는 상서면 마지동과 연구동이 기록되어 있는데, 연구동은 연귀동과 일정한 연관을 가진 것’으로 추상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본래 ‘연귀(然貴)’가 동일한자음의 ‘연귀(蓮龜)’ 표기되었기 때문에 ‘귀(龜)’를 ‘구(龜)’로 읽어서 ‘연구(然九)’로 표기하고 이를 ‘연구(連龜)’로 바꾸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연구’로 남게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11) 마지리의 ‘摩旨’는 ‘麻旨’의 오기이다.

『부산향토문화전자대전』에는 ‘연구리(蓮龜里)’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유래] 연구리(蓮龜里)는 이곳의 연봉리(蓮峰里)와 구림(龜林) 마을이 합쳐지며 만들어진 합성 지명이다. 연봉리는 마을의 산이 연꽃처럼 생겼다 하여 불리진 지명이며, 구림은 구칠재에서 따온 명칭이라고 한다. 또한 이곳 주민들은 옛날 연구리 본동에 연못[蓮池]이 있었고 이곳에 거북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지명이 유래되었다고도 한다.

[형성 및 변천] 연구리의 이전 지명에 대한 이야기가 전하고는 있으나, 『호구총수(戶口總數)』[1789]에 기장현 상서면 연구리로 기록되어 있으며, 1895년(고종 32) 동래부(東萊府) 기장군 상서면 연구동이 되었다. 1914년 동래군에 귀속되며 철마면 연구리가 되었고, 1973년 동래군이 폐군되면서 경상남도 양산군에 편입되면서 양산군 철마면에 속하였다. 1986년 양산군 동부출장소 관할이 되었으며, 1995년 부산광역시로 편입되면서 기장군이 복군되어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연구리가 되어 현재에 이른다.

위의 정보에는 『부산지명총람』에 나타난 것처럼 ‘연구리(蓮龜里)는 연봉리(蓮峰里)와 구림(龜林) 마을이 합쳐지며 만들어진 합성 지명’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선대의 지명이 ‘然貴’에서 출발한 것이라면 이러한 지명의 연원은 오류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연구리 본동에 연못[蓮池]이 있었고 이곳에 거북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표기 한자에 귀인한 지명 연원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또, 『호구총수(戶口總數)』[1789]에 기장현 상서면 연구리로 기록되어 있으며, 1895년(고종 32) 동래부(東萊府) 기장군 상서면 연구동이 되었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분명히 『호구총수』는 ‘연구리’로 읽어야 하며 1895년 역시 ‘연구동’으로 읽는 것이 올바른 지명 해석이다.

7. 철마면 백길리

철마면 백길리는 문헌 정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변천의 모습을 보인다.

호구총수 1789년	기장현읍지 1832년	기장군 가호안 1904년	조선지지 자료 1911년	경상남도 지지조서 1914년	신구대조 1917년	한국지명 총람 1980년
上西面 朴吉里	上西面 朴吉里	上西面 栢吉洞	上西面 栢吉洞	鐵馬面 栢吉里	鐵馬面 栢吉里	鐵馬面 栢吉里

백길리 지명은 『호구총수』에서는 상서면 ‘박길(朴吉)리’로 나타난다. 이는 원 ‘지명’이 백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박길리의 지명은 1832년 『기장현읍지』에까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오래도록 이 지명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1904년 『기장군가호안』부터 ‘백길(栢吉)리’로 변화하여 나타나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한국지명총람』(9:317)에 나타난 철마면 백길리(栢吉里)의 지명 정보는 다음과 같다.

본래 기장군 상북면 지역으로서 백길동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백길리라 해서 동래군 철마면에 편입되었다가 1973년 동래군이 폐지됨에 따라 양산군에 편입되었음.

위의 지명 정보에는 백길리의 선대의 지명이 ‘상서면 박길리’였다는 정보를 누락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부산지명총람』(7:377~378)에서는 다르게 나타난다.

백길리는 《기장현읍지(1831)》에 상서면 박길리(朴吉里)였다. 따라서 마을 명칭은 18세기 이전에 존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에는 상서면 백길동(栢吉洞)이 되었다. 이때 박길(朴吉)이 백길(白吉)로 표시되었는데, 이는 박길보다 백길이 좋은 음을 가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일제 강점기인 1914년 3월 1일 행정구역통폐합으로 동래군 철마면 백길리가 되었고, 1973년 양산군에 속했다가 1995년 3월 1일 부산 광역시로 편입됨에 기장군 철마면 백길리가 되었다.

『부산지명총람』에서는 백길리의 선대 지명이 ‘박길리’였다는 것을 제시하고 ‘마을의 명칭이 18세기 이전에 존재하였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추정은 1789년 『호구총수』의 기록을 제시했다면 더 정확한 정보를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박길’에서 ‘백길’로의 변화를 미화지명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이러한 해석의 근거가 부족하다. ‘박길’이 ‘백길’로 변화한 것에는 음운론적 해석도 가능한데, 둘째 음절의 ‘ㅣ’모음 때문에 첫음절의 ‘ㅏ’음이 전설모음으로 변하는 ‘전설모음화’ 현상의 적용에 따라 ‘ㅏ’로 변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좀더 고증이 필요하다.

『부산향토문화전자대전』에는 ‘백길리’로 나타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형성 및 변천] 백길리는 『호구총수(戶口總數)』[1789]에 기장현 상서면 박길리로 나타나고, 1895년(고종 32) 동래부(東萊府) 기장군 상서면 백길동이 되었다. 1914년 동래군으로 귀속되며 철마면 백길리가 되었고, 1973년 동래군이 경상남도 양산군에 병합되면서 양산군 철마면에 속하였다가, 1986년 양산군 동부출장소 관할이 되었다. 1995년 부산광역시에 편입되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백길리가 되어 현재에 이른다.

[명칭 유래] 옛 이름은 박길리(朴吉里)이다. 박(朴)은 박실(朴谷)·배미산·배산·바리산 등의 예와 관련된 ‘밝다’의 옛 말이고, 길(吉)은 ‘길 영(永)’의 뜻을 받아 ‘밝은 고개의 긴 안쪽’, 즉 양지 안쪽 마을의 의미가 된다고 본다. 실제 백길리(柏吉里)는 와여리에서 웅천리로 통하는 긴 협곡의 안쪽에 위치한 양달의 골짜기에 위치해 있다. 박(朴)이 백(柏)으로 변한 것은 ‘밝다’의 옛말을 차음 표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마을 입구에 잣나무가 있어서 지명이 유래되었다고 전한다. 이 잣나무가 마을을 융성하게 할 것이라 하여 ‘잣 백(柏)’, ‘길할 길(吉)’로 지명이 비롯되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잣나무가 없어졌다고 한다.

위의 지명정보에서 다른 정보와는 달리 『호구총수』의 박길리의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한자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제는 ‘박(朴)’에 대한 지명 정보인데, ‘박실, 배미산, 배산, 바리산’ 등도 ‘박’ 즉 ‘밝.’의 차음 표기로 해석하는 것이다. 배미산, 배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盃山’으로 표기되는 산으로 ‘잔 배’ 즉, ‘잣배’를 차음 표기한 지명이다. 잣은 성의 고유어로서 성이 있는 산이 배산인데, 이것을 ‘배미’로 표기하기도 하였다.¹²⁾ 여기서 ‘미’는 산의 고유어 ‘피’에서 바뀐 말이다. 이 때문에 잣배의 ‘잣’을 잣나무로 차훈표기하여 ‘柏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위의 지명 연원의 설명에서 ‘잣나무가 예전에는 있었다가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도 원래 ‘柏’자 지명이 잣나무에서 연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박’이 백으로 변한 것은 밝다의 차음표기’라는 것은 잘못된 해석일 가능성이 높다.

12) 부산 연제구 ‘배산’도 여기에서 연유한 것이다.

8. 정관면 두명리(斗明里)

정관면 두명리의 지명 변천 자료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호구총수 1789년	기장현읍지 1832년	기장군 가호안 1904년	조선지지 자료 1911년	경상남도 지지조서 1914년	신구대조 1917년	한국지명 총람 1980년
下西面 末田洞	下西面 末田里	下西面 斗田	下西面 斗田洞	鼎冠面 斗明里 (斗田洞+ 夫明洞)	鼎冠面 斗明里 (斗田洞+ 大明洞)	鼎冠面 斗明里 (두전동+ 대명동)
		下西面 富明里	下西面 夫明洞			

두명리는 원래 『호구총수』에서는 ‘末田里’로 나타나고 이것이 『기장군가호안』에서 ‘豆田’으로 변화하여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는 너른 밭, 큰 밭이라는 뜻의 고유 지명 ‘물밭’이 한자로 표기되면서 다양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이 된다. ‘末田’의 末은 ‘물’의 차음표기이며, ‘斗田’의 ‘斗’는 ‘물’의 차훈표기로 나타난 것이다. 한편 『기장군가호안』의 ‘부명리(富明里)’가 『조선지지자료』에서는 ‘부명리(夫明洞)’로 달리 표기되어 나타나고 일제 강점기 행정구역 개편으로 ‘두전동(斗田洞)’과 ‘부명동(夫明洞)’을 합하여 ‘두명(斗明)’으로 나타난 것이 오늘날에 이른 것이다. 특히 일제 강점기 『신구대조』 지명 자료 중 ‘斗田洞+大明洞’ 자료는 이전의 『경상남도지지조서』의 자료인 ‘斗田洞+夫明洞’의 자료와 다른데, 이것은 후대의 자료가 오류로 보인다. 이러한 오류는 『한국지명총람』에서 그대로 이어져 ‘斗田洞+大明洞’의 정보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처럼 『기장군가호안』에서는 ‘富明里’로 표기된 것이 일제강점기 『조선지지자료』에서 ‘夫明洞’으로 한자가 바뀌고, 이것이 1914년 ‘夫明洞’으로 표기한 것을 1917년 ‘大明洞’으로 바뀌어 표기하고 있다.

『한국지명총람』(9:312)에서는 ‘두명리(斗明里)’의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본래 기장군 하서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두전동과 대명동을 병합하여 두명리**라 해서 동래군에 편입되었다가 1973년 동래군이 폐지됨에 따라 양산군에 편입됨

지명의 변천에서 지적했듯이 『한국지명총람』은 두명동이 ‘두전동과 대명동’이 통합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두전동과 부명동’이 통합된 것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산지명총람』(8:216~217)에서는 ‘두명리[斗明里]’의 정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두명리는 두전(斗田)과 부명(富明) 두 개의 자연 마을로 법정리를 구성하고 있다. 두명(斗明)이란 두전·부명 두 마을에서 두(斗)와 명(明)을 한자씩 따서 만든 이름이다.[중략]

두명리는 《기장현읍지(1831)》의 하서면(下西面) 말전리(末田里)이다. 따라서 마을이 일찍부터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에서는 하서면 두전리(斗田里)와 부명리(夫明里)라는 두 마을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 이때 이전의 말전리(末田里)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두전리(斗田里)로 달리 표기되었다. 일제 강점기인 1914년 3월 1일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양 리를 통합하여 동래군 두명리가 되었다.

여기서 두명리가 ‘두전(斗田)과 부명(富明)’의 합성 지명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에서는 하서면 두전리(斗田里)와 부명리(夫明里)라는 두 마을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기장군가호안』에서는 ‘부명리(夫明里)’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부명리(富明里)’로 나타나기 때문에 오류 정보이다.

『부산향토문화전자대전』에는 ‘두명리’의 정보가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명칭 유래] 두명리(斗明里)란 이름은 두전 마을과 부명 마을의 합성 지명이다. 두전 마을의 옛 이름은 말밭이었다. ‘말’은 산마루로 솟음산을 뜻한다. 말밭은 솟음산의 남쪽에 있는 밭이라는 뜻이다. 밭을 차훈해 끝 말(末)로 표기하다가, 말 두(斗)로 풀이되는 오류로 전혀 다른 의미의 두전(斗田)이 되었다고 본다. 부명 마을의 옛 이름은 벌울로, 벌판에서 설치한 병영지나 초소를 뜻하는 단어이다. 이는 인근에 반월성(半月城)이 있어, 이 성의 외곽인 부명 마을에 군사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추정한다. 한자명으로는 벌판을 뜻하는 벌의 차음 표기로 ‘부(富)’를 쓰고, 울, 울타리의 차음으로 운다는 뜻의 명(鳴)을 써서 부명(富鳴)이라 하였다. 이후 부명(富鳴)에서 뜻이 좋은 부명(富明)으로 바뀐 것으로 보고 있다.

[형성 및 변천] 두명리가 속한 지역은 『호구총수(戶口總數)』[1789]에 기장현 하서면 말전리로 기록되어 있고, 1895년(고종 32) 동래부(東萊府) 기장군 하서면 **두전동과 부명동에 해당**된다. 1914년 동래군으로 귀속되며 두명동과 부명동이 병합되어 정관면 두명리가 되었다. 1973년 동래군이 폐지됨에 따라 경상남도 양산군에 속하였고, 1986년 양산군 동부출장소 관할이 되었다. 1995년 부산광역시에 편입되며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가 되었고, 2015년 9월 23일 정관면이 정관읍으로 승격되어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두명리가 되었다.

위의 지명 정보에는 “말은 산마루로 솟음산을 뜻한다. 말밭은 솟음산의 남쪽에 있는 밭이라는 뜻이다.”는 지명 연원 중에서 말이 마루로 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말밭이 마루산 즉 솟음산의 남쪽이라는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 말이 ‘斗’로 바뀐다는 것은 마루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넓고 큰 밭으로 해석함이 옳다. 이러한 지명 해석의

오류는 두명리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별판을 뜻하는 별의 차음 표기로 ‘부(富)’를 쓰고, 울, 울타리의 차음으로 운다는 뜻의 명(鳴)을 써서 부명(富鳴)이라 하였다. 이후 부명(富鳴)에서 뜻이 좋은 부명(富明)으로 바뀐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지명에서 가멸 부[富]가 ‘별판’의 차음이나 차훈 표기로 나타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은 오류가 되며 ‘부명(富鳴)’이라는 지명은 문헌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지명으로 근거가 없다. 여기서도 부명동의 한자 표기에 대한 제시가 있어야 지명의 정확한 변천을 이해할 수 있다.

9) 기장읍 연화리(蓮花里)

기장읍 연화리의 지명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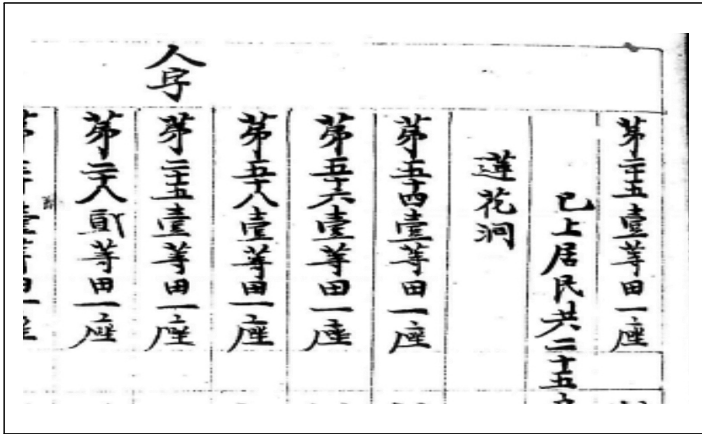
호구총수 1789년	기장현읍지 1832년	기장군 가호안 1904년	조선지지 자료 1911년	경상남도 지리지 1914년	신구대조 1917년	한국지명 총람 1980년
없음	없음	邑內面 武陽洞	邑內面 武陽洞	機張面 大邊里 (龍岩+武陽)	機張面 大邊里 (龍岩+武陽)	機張面 大邊里 (무양+용암)
		邑內面 西巖洞	邑內面 西巖洞	機張面 蓮花里 (新岩+西岩 +武陽)	機張面 蓮花里 (新岩+西岩 +武陽)	機張面 蓮花里 (신암+서암 +무양)
		邑內面 新巖洞	邑內面 新巖洞			
		東面 蓮花洞				

위의 지명 자료를 보면 연화리는 1904년 동면 연화리로 처음 등장하고 원래의 동면 연화리와 읍내면 연화리 新岩, 西岩, 武陽 일부 등을 합쳐 기장면 연화리로 바뀐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1914년의 변화에도 보이듯이 동면 연화리가 언급되지 않아서 1914년에 새롭게 연화리가

만들어진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한국지명총람』(9:256)의 ‘機張面 蓮花里’의 설명에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본래 기장군 읍내면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신암동, 서암동, 무양동 일부를 병합하여 이곳에 있는 연화봉의 이름을 따서 연화리라하여 동래군 기장면에 편입되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연화동’이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1914년 행정 구역 개편으로 ‘연화리’가 나타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오류이다.



<그림 5>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 동면 연화리

이러한 오류는 『부산지명총람』(7:184)의 연화리의 연혁에 그대로 나타난다.

신암마을과 서암마을이 합쳐 연화리라는 법정리를 형성하고 있다.

연화리는 《경상남도 기장군 가호안》 동면 연화동이란 명칭으로 처음 등장하였다가 1914년 3월 1일 군면정비 때 처음으로 연화리로 변경되었다.

위의 정보는 연화리가 신암 서암 뿐만 아니라 무양 마을 일부를 병합한 것이므로 이를 정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한국향토 문화전자대전』에 그대로 이어져 나타난다.

연화리는 조선 후기까지 정식 동리명은 없었고, 기장현 읍내면의 무지포(無知浦)[기장의 아홉 포구 중 가장 큰 포구]와 여리포(餘里浦)에 속하였다. 1895년(고종 32) 동래부(東萊府) 기장군 읍내면 신암동과 서암동·무양동이었는데, 1914년 동래군 기장면이 되며 신암동과 서암동·무양동을 병합하여 연화리가 되었다.

여기서 『기장군가호안』의 연화동(連花洞)의 정보를 밝혀야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다.

10. 정관면 방곡리(芳谷里)

정관면 방곡리의 지명 변천은 다음과 같다.

호구총수 1789년	기장현읍지 1832년	기장군 가호안 1904년	조선지지 자료 1911년	경상남도 지지조서 1914년	신구대조 1917년	한국지명 총람 1980년
下北面 方谷里	없음	下北面 芳谷洞	下北面 芳谷洞	鼎冠面 芳谷里 (芳谷+德山)	鼎冠面 芳谷里 (芳谷+大田)	鼎冠面 芳谷里 (芳谷+大田)

『호구총수』에서 방곡리는 ‘방곡(方谷)’으로 나타나지만 『기장군가호안』부터는 ‘방곡(芳谷)’으로 方이 芳으로 바뀌어 나타나고 이것이 지금 까지 이어져 나타난다. 그러나 『경상남도지리지』에는 芳谷과 德山 마을이 통합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신구대조』에서는 芳谷과 大田이 통합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그대로 『한국지명총람』까지 이어져 있다. 이 경우, 일제강점기 지명개정 당시의 기록인 『경상남도지리지』의 지명이 더 정확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방곡과 덕산의 병합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확한 지명 정보이다. 또, 현재 방곡리의 마을 지명에는 덕산, 방골 두 개의 지명이 나타나는 것도 방곡과 덕산의 병합으로 보는 것에 근거가 된다. 『한국지명총람』(9:313)에는 ‘방곡리’의 지명 정보가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본래 기장군 하북면의 지역에서 방골 또는 방곡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대전동 일부를 병합하여 방곡리라 해서 동래군 정관면에 편입되었다가 1973년 동래군이 폐지됨에 따라 양산군에 편입되었음.

위의 지명정보는 앞서 지적하였듯이 ‘방곡’과 ‘대전’의 통합인지 ‘방곡’과 ‘덕산’의 통합인지 정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부산지명총람』(8:254~255)의 ‘방곡리’ 지명 정보는 다음과 같다.

방곡리는 덕산(德山) 마을과 방곡마을을 합쳐서 법정리를 이루고 있다. 옛이름을 **방구실**이었다. 덕산 마을에서 방곡 마을까지는 야산이고 야산에 화강암이 띄엄띄엄 솟아있다. 방곡의 방(芳)은 꽃다울 방자이지만 이곳 방언으로 바위를 방우라고 발음하고 차음 표기한 것이다. 방(芳)은 방우(바위)이다. [중략] 방곡리는 《기장현읍지(1831)》에 명칭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다만 《기장현읍지》에 하미

면 산막방(山幕坊), 대전방(大田坊), 예림방(禮林坊)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방곡리는 예림방의 영역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방(坊)이란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볼 때 방곡의 명칭은 19세기 중엽 이후에 생성되었을 가능성이 많다.[후략]

위의 지명 정보에 방곡리가 방곡과 덕산의 병합이라는 정보는 정확하게 제시된 것이 맞다. 그러나 ‘방곡의 명칭은 19세기 중엽 이후’에 생성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잘못된 정보이다. 이미 『호구총수』에 방곡리(方谷)에 대한 기록이 있으므로 18세기에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정보이다. 또한 ‘方, 芳’을 ‘방’ 즉 바위를 연원으로 하는 것은 좀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산향토문화전자대전』의 ‘방곡리’ 지명 정보는 다음과 같다.

[지명유래] 방곡리(芳谷里)의 지명은 주변 야산 곳곳에 솟은 바위에서 유래하였다. 방(芳)은 바위를 뜻하는 지역 방언인 방우의 차음 표기이며, 여기에 고을이라는 뜻의 곡(谷)이 붙은 것이다. 방우골을 한자명으로 표기하면 암곡(岩谷)이 되는데, 발음이 좋지 않아 방우를 방(芳)으로 차음하여 방곡으로 표현한 것이다. 옛 이름은 방구[방우] 실이다.

[형성 및 변천] 방곡리 지역은 『호구총수(戶口總數)』[1789]에 기장현 하북면 방곡리로 기록되어 있고, 1895년(고종 32) 동래부(東萊府) 기장군 하북면 방곡동이 되었다. 1914년 동래군으로 귀속되며 정관면 방곡리가 되었고, 1973년 동래군이 폐군됨에 따라 경상남도 양산군에 편입되었다가 1986년 양산군 동부출장소 관할이 되었다. 1995년 부산광역시로 편입되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방곡리가 되었고, 2015년 9월 23일 정관면이 정관읍으로 승격되어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방곡리가 되었다.

여기서 방곡리의 지명 정보 중에 방곡과 덕산의 통합이라는 지명 자료가 빠져 있다. 이를 함께 제시해야 정확한 지명 변천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호구총수』에 나타난 지명인 方谷을 한자로 표기하여 변화의 모습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방곡에 대한 지명 연원으로 ‘암곡(巖谷)’을 ‘방곡(芳谷)’으로 차음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암곡’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증이 필요한 실정이다.

IV. 결론

지명의 역사적인 변천은 각 지역의 읍지, 고지도, 지명 통폐합의 자료, 『호구총수』를 비롯한 각 지역별 가호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정확한 변화를 해석할 수 있다. 각 지역별로 시대별 변화 자료가 구체적으로 정비될 때 올바른 지명 해석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근대 문헌에 나타난 기장의 행정지명 즉 마을 지명을 중심으로 그 변천을 확인하고 해석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특히 현재의 지명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놓은 『한국지명총람』을 살펴보면 일제 강점기에 변화된 지명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일제 강점기의 청산이라는 과제를 아직도 완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이 드러난다. 또한 부산 지역의 경우, 『한국지명총람』 이후 부산시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 『부산지명총람』 등의 지명 정보와 최근에 발행한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의 지명 정보가 상당 부분 왜곡되어 있음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한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1. 저서 및 논문

- 국토지리정보원, 『영남권 일본식 지명의 정비 방안 연구』, 2005.
 권상로, 『한국지명연혁고』, 동국문화사, 1961.
 기장문화원, 『기장의 역사와 문화』, 1998.
 박병철, 『한국지명의 단면과 전망』, 역락, 2020.
 양홍숙, 『기장 고지도에 반영된 기장과 그 의미』, 『기장고지도』, 기장문화원, 2018.
 이근열, 『『조선지리지』 부산 지명 연구』, 『우리말연구』 41, 2015.
 ———, 『고지도에 나타난 기장 지명 연구』, 『우리말연구』 57, 2019.
 ———, 『부산 기장군 ‘용천산’ 지명 변천 연구』, 『향도부산』 40, 2020.
 이병윤, 『부산 행정구역 지명의 변천사』, 『한국민족문화』 29, 2007.
 ———, 『한국행정지명 변천사』, 이회, 2004.
 이종봉, 『기장의 역사 문화와 고지도』, 『기장고지도』, 기장문화원, 2018.
 ———, 『조선 후기 기장군의 면리제』, 『역사와 세계』 54, 2018.

2. 자료

- 『호구총수(戶口總數)』, 1789.
 『기장현읍지』, 1832.
 『기장군읍지』, 1899.
 『기장군가호안』, 1904.
 『조선지리지』, 1911.
 『구한국행정구역명칭편람』, 1912.
 『경상남도지리지』, 1914.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1917.
 『東萊郡誌』, 1937.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980.
 부산시사편찬위원회, 『부산지명총람』 제7권, 기장군 (I), 2002.
 부산시사편찬위원회, 『부산지명총람』 제8권, 기장군 (II), 2002.

| Abstract |

A study on the change of Gijang-gun administrative place name
in modern place name data

Lee, Geun-Yeo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rehensively review the change of Gijang-gun administrative place name to confirm error in place name information. The place name data used in this study are 『Hoguchongsu』(1789), 『Gijang-hyeon-eupji』(1832), 『Gijang-gun-eupji』(1899), 『Gyeongsangnam-do Gijang-gun-gahoan』(1904), 『Joseon Jijijaryo』(1911), 『Old Korean Administrative District Names Handbook』(1912), 『Gyeongsangnam-do Jijijoseo』(1914), 『Shingu Daejo Chosun Jeondo Bugunmyeonridong Place name Handbook』(1912), 『Dongrae-Gunji』(1930), 『Hanguk Jimyeong Chongram』(1980) et al.

In this study, after examining the changes of administrative place names in Gijang-gun in general, among them, 10 village place names such as Dangsa-ri, Manhwa-ri, Yongso-ri, Giryong-ri, Guchil-ri, Yeongu-ri, Baekgil-ri, Dumyeong-ri, Yeonghwa-ri, and Banggok-ri were targeted. 『Hanguk Jimyeong Chongram』, 『Busan Jimyeong Chongram』, and 『Busan Local Culture Electronic Exhibition』 were compared to confirm the error.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Hanguk Jimyeong Chongram』, the place name that was chang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ppears as it is. In addition, it is confirmed that the place name information of 『Busan Jimyeong Chongram』 and the administrative place name information of the 『Korea Local Culture Electronic Exhibition』 are distorted a lot.

Second, the change in the place name of Gijang started in 『Hoguchongsu』 (1789) and changed a lot in 『Gyeongsangnam-do Gijang-gun-gahoan』 (1904). After that, in 『Gyeongsangnam-do Jijijoseo』 in 1914,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placename of Myeon centered on eup was changed to placename of Myeon centered on the center of Myeon, and it continues to this day.

Third, it is necessary to urgently correct errors in the change data of the placename such as Dangsa-ri, Manghwa-ri, Yongso-ri, Giryong-ri, Guchil-ri, Yeongu-ri, Baekgil-ri, Dumyong-ri, Yeonghwa-ri, and Bangok-ri.

Key Words : Modern placename of Busan, Gijang-gun administrative placename, 『Hanguk Jimyeong Chongram』, 『Busan Jimyeong Chongram』, and 『Busan Local Culture Electronic Exhibition』